슬로시티 10년 신안군 전지역 인증 도전

고길호 군수 호주 총회 참석
연맹회장·사무총장 면담
증도 재인증 등 적극 홍보

신안군이 올해로 국제슬로시티 인증 10년째를 맞이한 증도를 중심으로 신안 모든 지역의 인증에 도전한다.

신안군은 "고길호 신안군수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7박 9일간 호주 슬로시티 굴와(Goolwa)와 카툼바(Katoomba), 시드니 일대를 방문해 국제슬로시티 호주 총회에 참석하고, 국제슬리시티 인증 재도전을 위한 신안 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고길호(왼쪽 두번째)신안군수가 국제슬로시티 호주 총회에서 국제연맹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고 군수는 이번 방문에서 신안 증도의 슬로시티 재인증 의지를 거듭 강조했으며, 강 하구에 있는 호주 굴와지역의 역사와 해안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레포츠,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 재생사업 등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고 군수는 특히 올해 슬로시티 10년째를 맞은 증도를 중심으로 슬로시티의 신안군 전 지역 확대를 비롯한 신안의 잠재적 가치를 적극 홍보했으며, 국외 슬로시티 인증지역 등도 견학했다.

고 군수는 또 국제 연맹회장을 비롯한 사무총장과 연이어 환담을 갖고 "슬로시티 철학을 공유하고 신안군이 슬로시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인증 및 전 지역 인증 의지를 전달했다.

고길호 군수는 "1000여개의 섬과 청정한 갯벌, 해양을 중심으로 슬로시티 신안의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겠다"며 "국제해양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슬로시티로 지정된 증도는 매년 80만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명소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군 공동체 활성화
'수련마을 만들기' 발전계획 발표회

무안군은 "최근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2017년 제4회 행복무안 수련마을 만들기 마을발전계획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공동 개최한 이번 발표회는 수련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12개 마을리더와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 전승일 전라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박준수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이제 정부는 준비된 마을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숙한 마을만들기를 실행해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회에서는 일로읍 도장포마을이 '메주향 그윽한 도장포마을'을 주제로 마을비전을 제시하고 대상을 받아 상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삼향읍 지산마을과 운남면 내동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각각 1500만원을 받았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논갈이 들녘 먹이 찾는 백로 모내기를 앞두고 논갈이가 한창인 함평군 엄다면 한 들녘에 백로들이 몰려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10일간 열린다

기존 3일서 7일 늘려…추진위원장·집행위원장 선임

올해부터 영광군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10일간 열린다.

영광군은 "최근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임원 선임과 축제기간 결정의 건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추진위원장에는 김용식(영광·함평신협 이사장)이 선출됐으며, 집행위원장에는 정홍철, 부위원장에는 장은영, 양용남, 감사에는 정유, 박연숙씨가 새로 선출됐다. 또 상사화 축제기간은 기존 3일간에서 10일간으로 확정했다.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을철 대표축제로, 축제기간에는 전국최대 상사화 군락지인 불갑산 일대가 붉게 물들어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장관을 연출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각종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가을 대표축제로 자리잡았다"면서 "올해 축제에서는 지난해 미흡했던 부분을 더욱 보완해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김준성(가운데) 영광군수는 최근 불갑산 상사화 축제 추진위원장에 김용식(왼쪽) 영광·함평신협 이사장을, 집행위원장에는 정홍철씨를 선임했다. 〈영광군 제공〉

중국인 유학생 '무안 알리기 서포터즈' 발대

초당대 유학생 22명 참여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안알리기 서포터즈'로 나선다.

무안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중국 현지에 무안의 문화와 관광을 알리기 위한 '무안 알리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초당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2명으로 구성된 '무안 알리기 서포터즈'는 앞으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 등 각종 SNS매체를 통해 무안연꽃축제, 무안황토갯벌축제 등 지역축제와 관광지, 맛집, 특산품 등을 중국 현지에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된다.

무안군은 최근 한·중 정세 악화로 중국인 관광추세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단을 구성해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무안군은 이들 홍보단이 무안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월 1회 무안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며, 투어 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인 대상 관광코스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또 홍보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홍보에 대한 실비지원은 물론 군내 유료관광지 무료관람 혜택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 중단하라"

전남 22개 의회 의장단 촉구 결의문 채택

전남지역 22개 의회 의장단은 최근 영암군의회에서 제222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신안군의회 정광호 의장 대표발의로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과 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장 대표발의로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의장단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해 어족자원을 보호해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며, 유전자변형식품이 식용유, 간장, 당류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이번 결의문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필구 전남대표회장(영광군의회 의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 만큼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k-land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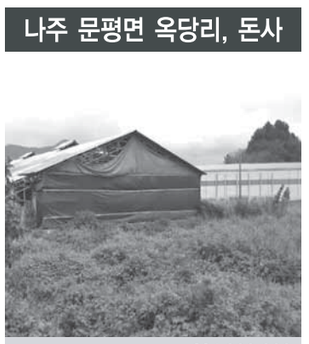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장성 서산면 송현리 (공장)

대지 1361평 최저가 657,000,000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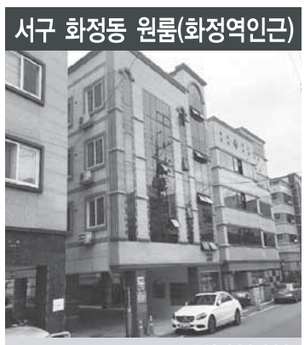
동구 대인동 근린주택 (4층건물)

토지 128평 최저가 885,000,000
건물 250평 최고가 885,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돈사

토지 1417평 최저가 224,000,000
건물 484평 최고가 321,000,000

화순 도곡면 천암리 (숙박시설)

대지 978평 최저가 993,000,000
건물 1294평 최고가 3,788,000,000

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

토지 94평 최저가 549,000,000
대지 157평 감정가 784,000,000

남구 서동 근린주택

토지 79평 최저가 553,000,000
건물 115평 감정가 553,000,000

22평형 6가구 (수익성 좋음)
대지 110평 건평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융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평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